

# 與 광주시장 · 전남지사 결선투표 도입

더불어민주당이 최대 변수 중 하나였던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심해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권이 요동치고 있다. 각 후보 진영은 유·불리 셈법을 따지느라 온종일 분주한 모습이다.

예비 경선인 컷오프에 이어 본격 경선, 결선투표 등 3단계 경선이 현실화되면서 대표성 확보와 사표(死票) 방지 등의 긍정적 기대감과 함께 경선 과정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는 후보단일화가 현실화된 가운데 나온 중앙당의 '깎짝 조치'여서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를 낼지, 예상치 못한 내부 균열이 생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6·13지방선거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민정일치로 결정했다. 모든 지역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식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결선투표는 본경선과 같은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24시간 안에

## 컷오프 후 1차 경선 과반득표 없으면 1대1 결선투표 도입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경선 과정과 내용, 짧은 경선 일정 등을 이유로 그동안 결선투표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광역단체장은 권리당원 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후보를 결정하며, 안심번호 본경선 선거인단을 그대로 결선에 사용할지는 확정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각 후보 진영은 대체로 중앙당 결정을 수용하는 분위기다.

7표전 양상인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결선투표 없이 3인 또는 4인 이 본경선을 치를 경우 30% 인권의 지지율로 당 대표에 선출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대표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데 결선투표제는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결선투표제를 강력히 요구해온 민형배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절차상 번거로움과 비용부담은 있을 수 있지만 대표성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훨씬 민주적"이라고 밝혔다.

3~4인 경선시 무더기 발생할 수

있는 사표도 방지 또는 최소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예비후보는 공식 기자회견 등을 통해 즐기치게 결선투표제 도입을 요구해 왔고, 윤정원 광주시장도 이들과 뜻을 함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주말 이뤄진 3자 단일화가 결선투표제와 맞물릴 경우 특이 필지, 없는 게 많은 지를 두고도 정가의 분석이 교차하는 가운데, 세 후보 진영은 "섬세한 추가 논의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단일후보가 1대1 구도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는 게 뜻을 같이하고 있다.

세 후보 진영은 전날부터 이날 오후 8시까지 2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각각 1000명씩 선호도 여론조사를 실시중이며, 시민화단체 숙의배심원 20명의 최종 의견과 세 후보의 입장, 여론조사 결과 등을 더해 3일 자정까지 단일후보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 후보 진영은 "단일화는 결선투표 무산 움직임도 영향을 미치지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조기 단일화로 분위기를 선점하고 밀도있는 실무논의를 거치면서 세 진영을 하나로 묶는 시너지 효과도 낸 만큼 결선투표에도 자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섭, 이병훈, 양형자 예비후보도 "정치적 셈법을 떠나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전남지사 경선주자들은 "당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3인3책의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측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면서도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정훈 전 청와대 비서관은 "최고위 결정을 환영한다. 촛불정신을 꺾고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결선투표는 당원과 국민의 자존심을 제대로 반영해 '철세 정치'를 청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영록 전 전남농축산식품부장관 측은 "유·불리를 떠나 당의 결정인 만큼 수용하겠다"며 "다만 결선투표가 도입될 경우 자칫 경선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선거운동에 매몰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 강기정 · 민형배 · 최영호 오늘 '3자 단일후보' 결정

"촛불혁명 후 첫 지방선거, 광주정치 새 출발점"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내세운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사진 왼쪽부터)가 1일 오후 2시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단일화 선언식을 가진 뒤 손을 모으고 있다.

'광주를 바꿀 더 큰 힘'을 내세운 강기정, 민형배, 최영호(가나다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1일 오후 2시 광주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단일화 선언식을 갖고 광주시장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지난달 30일 단일화에 합의한 세

후보는 3일까지 단일 후보를 결정하고 시민공동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안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강 예비후보는 "그동안 광주정치는 개인의 단독 리더십으로 이끌어져 왔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며 "정당과 의회, 시민세력을 지방정부 시대의 새로운 정치 주체로 세우는 정치혁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예비후보는 "광주시장은 자치분권시대 흐름에 맞는 시민자치를 가장 잘 이끌어갈 시민주권시장이 나와야 한다"며 "세 후보가 합치면 이런 전환의 시대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예비후보는 "광주의 경우 그동안 스펙과 경험 위주의 60대 중후반 시절들이 이끌었다"면서 "이젠 젊은 기운을 통해 광주의 혁신과 세대교체의 큰 흐름을 이뤄내자"고 역설했다.

이날 단일화 선언과 시민공동정부와 관련,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격려 메시지도 함께 소개됐다.

세 후보는 선언식에서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자치분권 시대 광주 지방정부의 역동성을 살려내고 ▲광주성장과 시민행복이라는 공동목표에 헌신하고 ▲헌법정신이자 광주정신인 5·18 정신 구현에 앞장선다는 3가지 공동비전을 발표했다.

세 후보들은 선언문에서 "광주와 함께 살아왔고 시대정신 구현에 앞장서온 세 후보가 촛불혁명 이후 첫 지방선거를 광주정치의 새 출발점으로 만들고자 함께 한다"며 "광주정치는 낡은 관료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역동하는 정치, 중앙과 대등한 정치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 후보는 민주주의와 풀뿌리 광주정치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도전을 해왔다"며 "한손에는 정선, 한손에는 성장을 목표로 더 과감하고 새로운 도전으로 광주정치를 넓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윤러 "높은 수준의 자치분권에 기초한 시민주권 지방정부시대, 광주의 변화는 시장 하나를 바꾸는 것으로 해결될 수 없다"며 "정당과 의회, 시민세력 3주체가 정치를 끌어가는 시스템을 갖춰 시민의 삶을 구체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뉴스스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둔 2일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시의회 소속 여성의원 6인의 생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왼쪽 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른미래당 김옥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정 의원, 민주평화당 유정심 의원, 민중당 이미옥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경남 의원(이상 가나다순).

## 광주시의회 女의원 6인 생환 가능성은?

6월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광주시의회 소속 여성의원 6인의 생환 가능성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제7대 광주시의원 22명 가운데 여성 의원은 모두 6명으로 전체 의원의 27%에 이른다. 4명은 지역구 의원이고, 2명은 비례대표다.

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명, 민주평화당 1명, 바른미래당 1명, 민중당 1명 등이다.

이들 가운데 6월 지방선거에 출마했거나 출마가 예상되는 의원은 민주당 주경남(서구4), 평화당 유정심(남구2), 바른미래당 김옥자(광산3), 민중당 이미옥(광산2) 의원 등 4명이다. 주 의원과 이 의원은 이미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 비례대표 서미정 의원과 전진숙(북구4) 의원은 불출마 뜻을 굳혔다.

민주당 소속 3명과 평화당 김의원 등 모두 4명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나란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으로 여성전략 지역구 4곳에서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뒤 본선에서도 축배를 들어 의회에 입성했다. 여성후보자가 경선에서 주 의원은 2대 1, 나머지 세 의원은 3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의원 배지를 달았다.

4명의 출마 예정자 중 유 의원은 비례대표 공천과 지역구 출마를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3명은 출마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우선, 주경남 의원은 '여성 특례 없이 당내 경선에 나서 서구

의회 의장과 19대 문재인대통령 후보 국민주권 광주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황현택 후보와의 한편 대결을 앞두고 있다.

김옥자 의원은 경선을 뚫고 올라온 민주당 후보 등과의 승부를 앞두고 지역구 수성에 올인하고 있고 이미옥 의원은 비례대표 딱지를 떼고 일찌감치 지역구에 뛰어들어 표발을 갈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정당 지지도나 후보 인지도, 여성 전략지가 아닌 일반선거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생존율이 50% 안팎에 이를

## 2명 불출마·4명 지역구비례 도전

與추가 4곳·野주자 선전 여부 관심

"자기 의회, 女최대 9명까지 예상"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이번 선거에서 새롭게 지정된 민주당 여성선거구 4곳(남구3, 서구2, 북구3, 광산4)의 여당 후보들이 당 지지도를 등에 업고 본선에서 선전하고 여성 비례대표까지 감안하면 올 하반기 출마할 8대 의회에서는 여성의원 수가 적게는 5~6명, 많게는 8~9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의 여성선거구 전략이 표심을 자극하고, 여성전략구에서 4년간 의정 활동을 펼쳐온 기존 의원들이 선전할 경우 여성의원 수는 지금보다 늘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아랑 여성의원들의 선전 여부도 큰 관심사"라고 말했다.

스마트폰에서 검색해보세요!

(주)에이치앤프레스 검색

자연석/호박돌/간판석/판재석/조경용석재 등 석제품의 모든 것

# 광주 전남 석제품 전문

저희 (주)에이치앤프레스는 석제품전문대량판매 및 납품전문업체로서 자연석, 호박돌, 간판석, 판재석, 조경용 등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TEL : 062-224-5800 H·P : 010-5448-8868

“무료상담환영”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